

## □ 기획연재 □

## 컴퓨터 과학 산책(17)

## 한국의 정보화 : 유행인가, 열병인가?

고려대학교 고한석

경제활동이 다양한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느끼는 경이로움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다. 거리는 지하철 건설로 늘 파헤쳐져 있고, 곳곳에 새로운 빌딩이 들어서느라 공사가 한창이다. 게다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 바깥 외중에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걸음을 재촉한다. 삐삐라는 이름의 무선호출기가 풍요나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이미 가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나 글자조차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씩 차고 다닐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을 늘 보기도 하지만, 강대국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들의 부유함의 표상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도 듣게 된다. 그러한 시각적인 징조로는 물론 우리는 세계 경제 발전상에 잘 대응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의 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컴퓨터나 통신관련 산업에서 “정보 고속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고어 미국 부통령이 미국을 정보화시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부터이므로 불과 몇 년전이다. 그의 예견은 미래의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는 정보를 지닌 사람이 우세할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 것이다. 마침 연구소에 근무하던 나는 e-mail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최초의 수혜자들에 속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밤새 쌓인 e-mail들을 보는 것으로 많은 정보가 나를 통해 처리되곤 했다. 이때는 미국에서도 무선호출기가 의사나 마약판매상에게나 알려졌을 때이고, 휴

대폰은 너무나 비싸던 시절이었다. 새로이 나타난 전문가 그룹을 네트워크 엔지니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1993년에 초봉 5만달러를 받고 있었다. 당시는 “LAN”이나 “hub” 등의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할 때였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culture.korea.news와 같은 뉴스그룹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방문되곤 했다.

1995년 3월,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취업해 있던 나는 인생의 향로를 바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한국사람들의 정보화 시대에 대한 열정을 알지 못한 채로 단지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고국 사람들과 나눔으로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한국에 온 나의 놀람은 컸다. 모든 신문기사, TV토크쇼,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정보화 시대”에 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그 도구의 이용에도 열중해 있었다. 그러한 점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치열했다. 이것을 나는 “정보화 열병”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에 머물지 않고 열병에까지 다다른 데 대한 우려는 자못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설득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최근의 유행은 뉴욕보다도 먼저 서울에 도착한다고 한다. 검정기 유행의 주조라면 서울의 거리는 온통 검정의 물결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유행을 실용성에 우선하는 경향을 지닌 민족인가? 이 의문은 지난 2년간의 서울생활에서 줄곧 나를 따라다녔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자란 한국인이므로 대체적인 경

향을 짚어낼 수는 있다고 본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실용과 유행,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패션은 순간적이다.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오지는 않는다. 되돌아온 유행에도 변화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 자체의 생명은 참으로 짧다. 나의 전문분야를 들어 말하자면, 컴퓨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유행으로 가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에 대해 문맹이지 않으려는 동기는 이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컴퓨터나 네트워크가 유행을 떠나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책을 정리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고 편지를 쓰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것, 통신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지금의 열배 이상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인터넷에 연결하여 지구 반대편 사람과 통신을 할 수 있고, 지구 저쪽에 있는 문서를 복사하여 내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는 등의 일상에서의 필요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실용성의 문제이다. 2년 전까지 한국계 미국인으로 20여년을 지내면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몸으로 느끼면서 살다가, 다시 고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기서 나서 자란 많은 한국인들을 늘 관찰하고 적용하려 노력해 왔다.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진 한국의 문화는 여성들의 머리모양과 옷차림이었다. 물론 한국인들은 동일한 문화, 비슷한 신체적 특성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그들의 외모가 비슷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리를 나서서 두드러지게 비슷한 머리모양과 옷차림을 한 많은 여자들을 보면 문

화 사각지대에 들어선 듯한 착각이 든다.

미국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차림으로 살아간다. 그들의 다양성은 삶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을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특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컴퓨터에서의 다양성은 다른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대와 이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세대와 프로그래밍을 즐기는 세대가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턱대고 뽀뽀를 샀지만 자신에게 뽀뽀를 쳐 줄 사람을 갖지 못해 안타까워할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서 이용함으로써 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다양성을 이해하는 길이다. 지금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유행의 열병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자유로움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편리한 시대를 활기있게 살아갈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실용성과 다양성이며 그것이 지루함을 주는 잠시의 순간을 위하여 작은 양의 유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단지 열병처럼 유행하나 실제로는 먼지만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화 열병을 지켜보는 가슴에 우려가 서린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세대들이 컴퓨터와 관련기기들의 사용을 유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빛낼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 그로 인해 그들의 생활이 효율적이고 다양하며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